

리듬운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움직임 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은혜 · 홍성희*
신한대학교

Effect of Rhythmic Movement Activities, Movement Activities on Intellectual disabilities

Kim, Eun-Hye · Hong, Sung-Hee
Shinh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effects of using music media influence sensitivity and flexibility of motion of intellectual disability by conducting a performance test. It allowed three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use movement motion of the B-boy dance as popular music media. The practice took 30 hours over a 12 weeks period and performance test was conducted twice over that period. The study found that the movement activities of intellectual disability can be affected by the music media whether it is foreign or K-Pop music. Performance test helped to find the effects of music media on the movement activities of both individual intellectual disability students and three of them as a group. Initially, the practice varied sligh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disorder but during the progress, the movement activities depending on music media by three students were eventually performed identically at the final performance test. In particular, k-pop music was able to increase the completeness of the movement activities due to its high understanding and affinity.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ility, Music Media, Sensitivity, Flexibility of Motion

I . 서론

남녀노소 누구나 그 연령에 맞는 대중 리듬댄스는

음악을 쉽게 이해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접하는 움직임은 신체 활동은 유연성과 함께 동작 습득의 재미와 흥미를 가지며 신체의 유연성을 기른다. 신체의 움

* hongsungh22@hanmail.net

직업활동의 변화에서 체력은 신체적성과 운동적성으로 나누어진다(Cureton, 1971). 신체적성에는 내장기관의 형태, 체격, 감각기관이 적성, 운동기능을 포함하며, 운동적성에는 근력, 지구력, 순발력, 평형성, 민첩성, 유연성 등 6개의 요소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움직임활동의 유연성에 대한 관절운동의 활용에 따라 동적유연성과 정적유연성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동적유연성은 일정한 동작을 연속적으로 할 때에 그 동작의 원활함에 관여하는 유연성을 말하며, 정적유연성은 정지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부드러운 몸의 움직임 동작을 의미한다.

지적장애아는 발성기관의 발육지체 및 질환으로 폐활량이 적고, 언어장애와 신체기능의 미발달되어 있으며, 동작표현의 장애가 심하다. 뿐만 아니라 비 장애 학생에 비해 근력, 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평형성, 반응 시간 등의 일반 운동 기능과 체력이 약 2년에서 4년 정도 뒤떨어지는 특성이 있다(홍양자, 1996). 선행 연구들 대다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경험이 인지기능, 평형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며, 무용요법, 치료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 연구들이 발표되어 지고 있다.

움직임 활동면에 있어서는 운동기능(motor fitness)이나 체력육성(physical fitness)과 같은 신체능력 향상은 특수체육(adapted physical education)이나 신체치료(physical therapy)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신체를 통한 자기 표현기법, 공간과 연관된 자신의 움직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방향감, 그리고 이러한 표현력과 연관된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무용 동작의 치료적인 면에서 움직임활동으로 볼 수 있다(김나영, 2000). 또한 리듬을 이용한 신체활동으로서의 무용표현은 신체의 움직임과 더불어 움직임 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게 하고 신체적인 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성, 자아 존중감, 자기표현능력, 공간인식 개념을 형성하게 함으로서 신체활동의 통합을 추구하고 신체상의 실질적인

개념을 획득하도록 돕는다(심민정, 1999).

이러한 특성들을 살펴보았을 때 지적장애아의 리듬을 통한 댄스활동 교육은 정서의 순화와 심미적 세계의 경험 및 신체 단련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아에 있어 문제시 되는 언어적 문제, 욕구불만에 따른 과잉행동, 감각이나 운동력 지체 등의 신체적 문제와 감정 표현 영역의 심리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리듬을 통한 댄스활동의 움직임 활동 교육이 필요하다.

리듬을 통한 댄스움직임 활동에서는 공간의 움직임, 시간의 움직임, 중심이동 움직임, 신체의 움직임등 움직임활동이 기반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사례 발표를 통한 스토리텔링(발표회 작품)에서 리듬을 통한 댄스움직임 동작은 비보이 기본움직임과 움직임동작의 가장기본동작인 중심이동과 비이동 동작 선정으로 step(side, front, back), Turning, jumping 동작으로 움직임 동작 활동으로 작품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실기발표회를 통하여 다양한 리듬동작 댄스의 움직임활동의 경험은 리듬표현에 따른 움직임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활동에 따른 리듬을 최대한 이용하여 감각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즉 손과 발의 연합 동작으로 간단한 동작에서 복합동작으로 발전 시켜 음악매체에 맞춰 정해진 동작을 움직임이도록 하였다.

움직임 활동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경험을 하며 움직임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리듬활동을 통한 움직임에서 음악매체는 정신과 신체건강을 복원 및 유지시키며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으로(Bruscia, 1984), 생리학을 비롯하여, 정신생리학, 감각운동발달, 지각, 인지, 행동, 감정, 의사소통, 대인관계, 창의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여러 국면에 관여하고 임상적으로 적용된다(Bruscia, 2003).

음악매체는 우리 몸의 신경학적인면에서도 치료의 역할로 (Neurologic Music Therapy: NMT) 지적, 발달장

어로 인한 신체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음악을 기능적으로 사용하여 신경학적 원인으로 인한 인지, 감각, 운동기능 장애에 음악을 치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Thaut, 2010). 음악을 신경학적으로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각 리듬이 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Thaut, 2005). 뇌는 리듬의 변화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적응하는 신경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신경학적 음악치료는 인간의 신체적인 이상상태의 교정과 개선을 목적으로(정희진, 2001), 신체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듬을 사용한다(Thaut, Peterson & McIntosh, 2001). 신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구조화하며 신체활동을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생물학적 고유성을 지닌 음악(Merriam, 1964)의 모든 요소 즉, 리듬, 박자, 멜로디, 강약, 하모니, 악기의 기능 등을 사용하는데, 특히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아들에게 있어서 인지, 언어 그리고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ADHD, 지적장애, 발달장애등,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손상어른과 아동들의 신체 재활치료에 많이 사용된다(정현주, 김영신, 최미환, 조혜진, 노주희, 김동민 등, 2006).

신체의 움직임의 반응들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음악에 따른 움직임활동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자폐아, 지적발달장애, 발육발달장애, 뇌로 인한 장애를 가진 환자나, 치매, 언어장애, (박지은, 김승오, 김종수, 2011; 한송이, 2011; 최진희, 2012; 이희운, 2011; 이순화, 김승현, 정문희, 김윤신, 2008; 원혜경, 2003; 홍도경, 2005; 남선화, 2010; 문주연, 2009; 강수경, 2001; 이순화, 2008) 등이다. 주로 인지기능, 운동기능, 언어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음악매체를 운동 치료적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음악매체에 따른 리듬의 활용은 장애인들을 상대로 인지, 운동, 언어기능의 재활을 위해 적용되었을 때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움직임 활동에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 리듬

음악의 정의는 운동재활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음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 즉, 리듬, 박자, 멜로디, 강약, 하모니, 악기의 기능 등을 통한 움직임 활동에 인지, 감각, 운동기능 손상에 운동을 통한 재활 목적으로 개입시킨다. 움직임 활동의 기법들은 과학적인 연구에 기반을 두어 성립되며, 각각의 대상자에게 필요한 운동의 목표에 따라 신체 재활의 의미를 갖는다(이윤진, 2007).

Baker와 Roth(2004)에 따르면 움직임을 통한 신체 접근으로 대상자의 존중하는 장애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상실된 기능의 재활을 위해 직접적으로 장애를 줄여가는 것을 말한다(Baker & Tamplin, 2006; 정현주 등, 2006).

움직임을 통한 신체활동에 있어 음악매체는, 신체 재활을 위한 중재, 인지 장애 및 행동 장애를 위한 중재, 의사소통 재활을 위한 중재, 정서적인 적응을 돕는 중재(Davidson & Magee, 2002)로 나눌 수 있다.

음악과 뇌는 신경생리학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리는 감각자극들이 귀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청각관을 활성화하고 연수를 통해 중추신경계로 들어가 시상을 통과하는데 그 후에 대뇌피질 속에서 처리된다(Baker & Tamplin, 2006). 또한 리듬이 청각에 자극을 주면 그 소리는 청각전달 경로를 따라 대뇌의 청각피질로 전달되며 변연계(Limbic System)를 통해 생리적, 심리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리듬자극은 뇌의 변연계를 활성화시켜 신체동작을 향상시키고, 정서를 변화시키며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이순화, 2008).

신체장애는 일반적으로 대근육, 소근육, 협응력, 균형 등의 신체 움직임을 위한 음악매체가 적용된다(이순화, 2010). 음악의 리듬을 청각에 자극을 주는 신체 활동 방법의 연구들을 통해 신체발달 장애인의 감각 운동기능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한 바가 있다(Carle & Kohn, 2001).

움직임 활동을 위한 신체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

는 장애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인 문제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 추상적 사고와 문제해결, 자기점검, 충동성 조절, 통찰력, 반향어, 인내, 주의력, 기억력, 분노조절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룹 송라이팅, 가사분석, 음악과 이완을 위한 중재를 실시할 수 있다(Baker & Tamplin, 2006).

음악매체는 발표작품의 스토리를 서로의 대화 방법의 수단으로 표현하게 하여 몸과 마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움직이고 이런 동작을 통한 대화는 그들을 알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댄스의 움직임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자신의 내적인 감정의 표현을 나타내기에 장애학생들에게는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고 몸의 움직임에 균형감과 공간 인식이 향상되어짐을 관찰할 수 있다.

음악의 리듬은 고통의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힘든 의사소통 장애 환자에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도구로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언어보다 민감하고 분명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으며, 실어증과 같은 언어장애 환자에게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홍도경, 2005).

음악의 리듬은 전래동요나 자장가에서부터 동요, 인기가요, 힙합, 하드록, CM송, 만화영화, 아동극, 어린이 드라마의 OST와 주제곡까지 다양하며 이러한 곡들의 운동리듬으로 활용했을 때 장애아들이 신체의 움직임의 운동 반응의 유형과 횟수가 더욱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Baker & Tamplin, 2006).

음악이라는 적절한 에너지로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며 그 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과 생각을 표면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현실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여 상황에 대한 반응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편안하고 지지받으며 안전감을 가질 수 있으며(Baker & Tamplin, 2006). 음악의 리듬을 통하여 신체활동의 움직임 운동이 연습되어지는 속에서 간접적으로 계속되

는 실패감과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장애아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음악의 리듬은 적절한 에너지로 분노를 충분히 표현하며 그 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과 생각을 표면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현실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여 상황에 대한 반응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편안하고 지지받으며 안전감을 가질 수 있으며, 재활훈련 속에서 간접적으로 계속되는 실패감과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Baker & Tamplin, 2006).

음악매체에 움직이는 장애아들에게 있어서의 나타나는 운동감각은 팔다리 움직임의 범위(Range of Motion)를 넓히고, 힘과 지구력, 팔다리의 협응, 손가락과 손의 동작기능을 증진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음악매체를 선택하여 연주, 표현하며 신체움직임을 자극하고(이순화, 2010), 신체활동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시킬 수 있다.

신체활동의 움직임은 음악매체의 관계에 있어서 멜로디, 리듬, 화성, 강약 등의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움직임의 동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유도할 수 있으며, 청각 리듬의 신호는 신체 균형 잡기나 움직임, 속도뿐 아니라 움직임 거리에도 영향을 미친다(Thaut, 1999).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시공간적인 움직임의 신호를 주어 목표 활동을 유도하며, 대상자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능적인 훈련 동작들의 순서와 패턴을 만든다. 시간적신호(Spatial Cueing)로는 음악의 속도, 박자, 리듬패턴, 형식이 있으며, 공간적 신호(Temporal Cueing)인 음높이, 음량, 소리의 연속성, 화성, 역동적 인움직임의 신호(Force Cueing: 힘의 신호)로 하모니와 속도를 주기 위해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한다. 음악리듬의 박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리듬 패턴을 만드는 것으로 패턴의 순서가 필요하고 동작마다 사용 시간이 다르다(Thaut, 1999). 이러한 음악적 리듬 자극의 사용은 운동 행동을 유도하고 구조화시킬 수 있으며,

음악은 행동을 유도, 실행, 조절하는 추진력 있는 힘을 가진다(Sacks, 1998).

리듬에 따른 움직임 활동 동작 교육은 지적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움직임을 통하여 억제된 욕구나 분노 등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과 더불어 지적장애 아동들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신체와 움직임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과 더불어 신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류분순(2007a, 2007b)은 신체 움직임은 자의식을 가능케 하고 자신의 일체감 혹은 통일성을 이루게 하도구가 되어 억압된 개인의 정서를 파악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체적 기능의 향상과 협응을 도모하고, 자기 정서에 대한 이해와 조절을 통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최운정, 2010; 고동완, 2003; 김경은,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리듬운동 활동이 음악매체의 활용범위에 따라 지적장애아들의 움직임동작의 숙련도 및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12주간의 교육후 실기발표회(영상, 사진물)을 통하여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33명 지적장애 학생들의 리듬운동움직임 활동의 인원 중 본 연구를 위하여 3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중 15세 여학생은 뇌병변 지적장애 2급, 10주간 보컬과 댄스에 참여하였으며, 18세 남학생은 지적장애 3급으로 12주간 보컬과 댄스 참여하였고, 16세 남학생은 움직임 활동수업에 참여하여 공연을 준비한 장애 학생이며 지적장애 3급으로 10주간 댄스수업에 참여하였다<표 1>.

2. 연구기간

2015. 6. 7일부터 10. 5일까지 총 12회기를 진행하였다.

3. 연구대상

움직임활동의 수업진행은 1일 3시간 진행하였으며 (30분 수업, 20분 휴식), 움직임활동 단계별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학생의 장애유형 및 신체적 발달 유형

장애유형	성명	연령 및 성별	특수교육경험	구체적특성	운동능력
지적장애 2급 (뇌병변)	김00	15(여)	놀이치료 언어치료	- 혼자놀기를 좋아한다 - 책 읽기를 좋아한다 - 다소 고집이 세다 - 자기주장이 확실하다	- 근력이떨어지지만 댄스와 리듬을 좋아한다 - 감정에 따라 운동능력의 차이가 크다 - 집중력은 다소 있지만 신체협응력이 부족하다 - 발표(공연)를 희망한다.
지적장애 3급	이00	18(남)	운동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 성격이 밝은편이다 -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 집중력이 떨어진다	- 대중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 - 댄스와 운동을 좋아한다 - 감정의 차이에 움직임활동에 차이가 난다 - 발표(공연)를 희망한다.
지적장애 3급	김00	16(남)	운동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 성격이 밝다 - 운동과 댄스를 좋아한다. - 신체 협응력이 좋은편이다	- 대중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좋아한다 - 움직임 활동을 좋아한다 - 발표(공연)를 희망한다.

표 2. 움직임활동 단계별 프로그램(1회시 3시간 연습)

단 계	내 용	
초기 1회기~4회기	목 적	몸풀기운동, 교육내용수행, 운동기능 향상
	목 표	강사분들과 학생들과 좋아하는 노래와 신체를 활용한 간단한 게임과 함께 서로 친밀감을 형성. 발표회때 사용할 음악매체 탐색과 신체움직임 연습. 음악매체의 다양성을 통해 대상자가 자발적 동작연습할 수 있도록 유도.
중기 I 3회기~5회기	목 적	동작수행, 음악선택유도, 운동기능향상
	목 표	신체활동과 보컬연습시 동작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학생, 보컬과 리듬운동(K-POP음악). 정확한 동작연습위해 발바닥 모양을 밟고 연습.
중기 II 6회기~9회기	목 적	리듬운동 정확성 수행, 독립적으로 신체 활동 수행하기, 음악매체에 따른 움직임 프로그램 수행하기, 운동기능 향상,
	목 표	최소한으로 강사의 도움을 받아 리듬운동을 수행. 보컬과 리듬운동 수행으로 발표회 연습 향상
종결 9회기~12회기	목 적	리듬운동 정확성 활동, 독립적으로 신체활동 수행하기, 발표회 준비 완성.
	목 표	리듬운동의 음악매체에 따른 감성표현 스스로 표현하기. 스스로 리듬운동의 완성본 준비해서 발표하기.



그림 1. (관찰예제1-전)



후)



그림 2. (관찰예제 2- 전)



후)



그림 3. (관찰예제 3-전)



후)

Ⅲ. 결과

1. 학생 개인별 발표회를 통하여 나타난 음악매체를 통하여 나타난 움직임 활동결과

1) 김00 여자학생 실기발표회 결과 <그림 1>(관찰예제 1 전, 후 사진 참조)

김00 학생은 처음에는 모든 움직임 동작자체가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 있으며 특히 화장실 가는문제가 항상 선생님들에게는 주의를 요하는 행동으로 매우 조심스러웠다

동작의 특징으로는 걷는 걸음이 안정성을 찾지 못하였다.

전) 10주전 모습에서와 같이 무대 뒷쪽에서 작품 동작의 연결성과 완성도가 많이 미흡하였다.

후) 10주 후의 모습으로 발표회를 통하여 (사진 앞쪽의 모습) 리듬을 통한 동작의 완성도와 함께 다소 미흡하지만 연결성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다소 부자연스러웠지만 음악의 리듬에 본인의 감

성을 몰입되어 동작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다.

2) 김00 18세 남자 학생 실기발표회 결과 <그림 2>(관찰예제 2 전, 후 사진 참조)

김00 (18세) 학생은 체격이 다소 다른아이들 보다 큰편으로, 움직임 동작의 연결성이 많이 부족하여서 많은 시간을 다른 학생들보다 본인이 더 노력한 결과로 실기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다

전) 10주전 모습에서와 같이 동작의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여 연결동작 연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동작의 완성도 역시 부족한 편이어서 동작 하나하나를 강사선생님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특징은 본인의 지속적인 엄청난 연습의 양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후) 10주후 모습에서와 같이 신체의 특징상 작은 동작보다는 큰동작을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체력이 좋은편이어서 연습하는데는 무리가 없었다

3) 김00 16세 남자 학생 실기발표회 결과 <그림 3>(관찰예제 3 전, 후 사진 참조)

김00 (16세) 학생은 체적이 연령에 비해 다소 왜소하였다. 특징은 성격이 밝은 편으로 주의의 친구들을 잘 챙겨주며 항상 먼저 움직여서 친구들을 도와주는 학생이었다. 본인의 부족한 점과 행동의 어려움을 잘 아는 학생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동작 연습을 하였으나 실기발표회때는 움직임 활동면에서 다소 부족하여 보컬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리듬을 통한 댄스 움직임 활동의 효과는 장애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3명 모두에서 음악의 매체 방법에 따라 동일하게 움직임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댄스의 움직임과 보컬을 동시에 실시한 학생일수록 더 빠른 시간 움직임이 활동이 유연하며 움직임순서 외우기 역시 연습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음악매체 선택에서도 외국음악은 비트와 강력한 악기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k-pop음악은 가사의 이해력과 친근감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학생들에게 움직임활동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동작유연성 움직임활동에 있어 3명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1명(남, 18세)만 확실하게 변화된 움직임의 연결을 보여주었다.

움직임활동의 완성도(발표회)를 높일 수 있었던 움직임 연결의 유연성은 한류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음악매체의 영향으로 k-pop음악이 외국음악매체보다 문

화적인 흐름에 따라 이해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한류 음악매체인 k-pop음악의 접목은 지적장애 학생들의 숨겨진 내면의 감성들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움직임 활동 역시 연속적으로 동작의 활동을 보여주는 유연성의 동작보다 동작의 정확성을 원하는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음악매체는 외국음악과 k-pop댄스음악을 선정한 결과 외국음악보다 k-pop음악에 움직임활동의 협응력이 더 뛰어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외국음악일 경우 움직임 활동의 유연성이 좋았으며, k-pop댄스 음악은 감성표현동작의 움직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가사의 이해력과 친근감이 잘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작표현의 움직임은 열정적인 리듬과 강한 선율은 내면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여 장애학생들에게는 강렬한 움직임 표현 활동에서 더 잘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그림 6>와 같이 대중음악의 장점은 장애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가장 잘 알려져 있어 선호하는 음악으로써 동기유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장애학생 스스로 학습 참여로 인해 움직임의 활동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들과 같이 문화에서 오는 감성적인면(발표를 통한 카타르시스의 표현적인면에서는 동등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음악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동작 움직임활동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장애학생들 스스로가 움직임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움직임활동과 더불어 음악매체의 다양한 활용은 장애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그림 5>.



그림 4. (발표회준비)



그림 5. (발표회본무대)



그림 6. (오디션)

2. 제 언

다양한 음악매체를 접하게 함으로서 장애학생들의 감정의 희,노,애,락을 확실히 표현력이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발표회를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음악매체 사용 역할을 이해시킴으로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감정표현을 이해와 동시에 동기유발이 되어져서 좀 더 정확한 동작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예술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짐을 시사함은 Thaut(2005), Thaut, Peterson과 McIntosh(2001) 뇌리듬의 변화에 빠르고 정확하게 적용되어 신체반응을 이끌어내어 신체

활동을 통합하는 음악적 리듬의 모든 요소(박사, 멜로디, 강약 등)가 신체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목적과 본 연구의 실기발표회의 결과와 일치함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치료적인 면만을 인지하여 활용되어지는 것보다 그들에게도 흥미와 재미와 도전이라는 목표의식을 갖게 함은 좋은 활용의 방법제시가 될 수 있음<그림 7>은 또한 Baker와 Tamplin(2006)의 리듬이 청각을 자극하여 생리적, 심리적인 반응을 일으키어 리듬자극이 뇌의 변역계를 활성화시켜 신체 동작을 향상시키고, 정서를 변화시키며 의사소통을 향상시킴은 본 연구의 실기발표회 결과에서 나타난 학



그림 7. 야외발표회 1



그림 8. 야외발표회 2

생들의 움직임 활동의 정확성에서 같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움직임동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며, 이를 실행하여 비장애인들 앞에서도 움직임 활동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를 목표로 정확한 동작을 관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장애학생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비장애 학생들과의 동등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실행되었을 때 자신감과 사회성을 가질 수 있음은 발표를 마친 후 소감을 얘기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감, 친구에 대한 배려, 사회성 등이 높이 나타났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 8>.

즉, 본 연구의 발표를 통한 움직임 활동의 결과는 그들의 감성적인 면을 학습에 활용하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남을 시사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수경 (2001). 모노톤 자폐아동의 음악치료 효과: 음역 및 억양의 변화를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고동완 (2003). 무용/동작치료가 정신지체인의 정서 표현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김경은 (2005). 리드믹 그룹 액티비티 원리를 적용한 무용/동작치료가 ADHD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김나영 (2000). 정신지체 청소년에 대한 욕구 조사 : 소비자 및 제공자의 관점들을 통합하는 접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남선화 (2010). 치료적 악기 연주가 뇌졸중환자의 상징기능과 일상생활동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
- 류분순 (2007a). 마음 치료의 열쇠 춤·동작 치료. 서울: 학지사.
- 류분순 (2007b). 무용 동작 치료학. 서울: 학지사.
- 문주연 (2009). 뇌손상 환자의 조음훈련을 위한 음악 치료 프로그램.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지은, 김승오, 김중수 (2008). 에드워드 증후군 환자의대안 증례보고. 산부인과초음파학회지, 2(2), 37-40.
- 심민정 (1999). 무용요법이 정신지체인의 사회성, 안정성, 적응성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원혜경 (2003).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RAS)이 뇌졸중 환자의보행개선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순화 (2008). 음악치료가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보행기능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순화 (2010). 아동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진.
- 이순화, 김승현, 정문희, 김윤신 (2008). 음악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41, 205-234.
- 이윤진 (2007). 경직형 뇌성마비 유아의 초보운동단계발달을 위한 음악치료활동 프로그램 개발: 신경학적 음악치료의 기법을 활용하여. 미간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희윤 (2011). 마비 말장애 환자의 조음 명료도 향상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현주, 김영신, 최미환, 조혜진, 노주희, 김동민 등 (2006). 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정희진 (2001).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RAS)이 뇌성마비 아동의보행능력 증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윤정 (2010). 리듬 운동을 통한 무용치료가 여성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기억수행 및 우울에

- 미치는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최진희 (2012). 신경학적 음악치료 기법을 활용한 이증과제 프로그램이 초기 치매노인의 낙상에 방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한송이 (2011).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우세손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적 악기연주 훈련 적용 사례 연구: MIDI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홍도경 (2005). MIT(melodic intonation therapy) 중심의 음악활동을 이용한 실어증을 가진 뇌졸중노인의 음절 수 증가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음악치료교육연구, 2(2), 57-67.
- 홍양자(1996). 뇌성마비인의 보행패턴을 위한 치료운동. 한국특수체육학회지, 4(1), 207-219.
- Baker, F., & Roth, E. (2004). Neuroplasticity and Functional Recovery: Training Models and Compensatory Strategies in Music Therapy.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3(1), 20-32..
- Baker, F., Tamplin, J. (2006). 임상가를 위한 매뉴얼 신경재활음악치료. [Music Therapy Methods and Neurore habilitation]. 최병철, 정은주, 김지연 역. 서울; 하나의학사.
- Bruscia, K. E. (1984). *International Newsletter of Music Therapy*, Vol.2.. NY: American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 Bruscia, K. E. (2003). 음악치료. [Defining Music Therapy] . 최병철 역. 서울: 학지사.
- Cureton. T.K. (1949). 신체적성운동(Physical fitness and dynamic health). 장주호 역(1971). 서울: 부원사.
- Davidson, J. W., & Magee, W. L. (2002). 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mood states in neurological patients: a pilot study. *Journal of Music Therapy*, 39, 20-29.
- Merriam, A. P. (1964). *The anthropology of music*. Chicago, Il: NorthwestUniversity Press.
- published manuscript, Center for Biomedical Research in Music at Colorado State University at Fort Collins.
- Sacks, O. (1998). *A leg to stand on*. New York: A Touchstone Book.
- Thaut M. H. (2005). 리듬, 음악 그리고 뇌. [Rhythm, Music, and the Brain : Scientific Foundations and Clinical Applications]. 차영아 역. 서울: 학지사.
- Thaut M. H., Peterson, D. A. & McIntosh G. C. (2001). Oscillatoryynchronization pattern in frontotemporal cortical circuits during nonverbal auditory working memory. *Proceedings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 Thaut, M. H. (1999). *Training manual for neurologic music therapy*. Un
- Thaut, M. H. (2010). Neurologic music therapy in cognitive rehabilitation. *Music Perceptio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27(4), 281-285.
- 논문투고일 : 2016. 4. 30.
심사일 : 2016. 6. 20.
심사완료일 : 2016. 6. 28.